

광주박물관 신안선 유물 3월부터 상설전시

광주·전남 국공립박물관 신년계획

■ 국립광주박물관

5월 '호남고고학 성과' 유물 전시

8월 '호남의 불교미술' 특별기획전

■ 국립나주박물관

6월 '최희량 장군과 임란첩보서목' 전

12월 반남고분군 발굴 100년 기념전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4월 '술, 문화...' 호남 전통주 소개

9월 '광주 장날' 전통시장 이야기



발굴 100주년을 맞는 나주 반남고분군. 국립나주박물관은 관련 특별전을 열 계획이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박물관들이 올해도 풍성한 기획 전시를 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설립 계기가 됐던 신안선 발굴을 기념하는 상설전시실을 조성하고 국립나주박물관은 마한유적발굴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지역 전통주와 장터 풍경을 살펴본다.

▲국립광주박물관=오는 3월, 2층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사이에 신안해저유물을 상설전시하는 신안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1월30일까지 열리는 신안선 발굴 40주년 기념전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출품작 중 청자음각당초문화병 등 200여점을 배치한다. 약 230㎡(70평) 규모 공간을 마련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전은 올해 두차례 계획하고 있다. 오는 5월2일부터 7월9일까지 열리는 '호남고고학의 성과'는 2015~2016년 호남지역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을 전시한다. 지난해 1월 북동동 유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꾸러미로 출토돼 주목을 받았던 중국 신나라(8~23년)때 화폐 '화천(貨泉)'을 비롯해 제주 고산리 유물 등 200여점을 선보인다. 1987년 처음 발견된 고산리유적(사적 제412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신석기 초기 문화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8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는 '마음이 곧 부처-호남의 불교미술(가제)'을 주제로 지역 불교문화를 살펴본다. 선종을 중심으로 지역 불교 정신적 토대가 되는 구산선문의 역사와 선맥 계승을 조명한다. 구산선문은 신라 말~고려 초 사회적 격변기에 주관적 사유를 강조한 선종(禪宗)을 퍼뜨리면서 당대 사상계를 주도한 9개 승려집단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장흥 보림사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 만들어진 미술품가 함께 동계염거화상 탑지석(보물 제1871호·탑이 만들어진 시기 등을 기록한 돌) 등 유물 130여점을 전시한다. 또 송광사 고분국사 등 대표적 스님들을 조명한다. 문의 062-570-7035.

▲국립나주박물관=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반남고분군 발굴 100주년을 맞아 12월 열리는 기획특별전 '신촌리 금동관 출토 100년'(가제)이다. 그동안 진행



광주 북동동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신나라 화폐 '화천'.

했던 반남고분군 발굴 성과를 비롯해 국내외 고분문화를 비교·조명한다.

6~8월에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최희량 장군을 소개하는 특별전 '최희량 장군과 임란첩보서목'을 연다. 보물 제660호로 지정된 '임란첩보서목'을 중심으로 최장군 업적과 의의를 살펴본다. 임란첩보서목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흥양(현 고흥군) 현감으로 있던 최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과 전라도관찰사에게 승전 소식을 전한 문서와 회답들이다.

3월에는 사진전 '실크로드'를 열어 실크로드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과 문화의 사진으로 소개한다. 9월에는 애완동물을 주제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어린이 대상 순회전 '난 우리집 귀여움이'를 개최한다. 문의 061-330-7830.

▲광주시립민속박물관=올 봄 준비하고 있는 특별전 '술, 문화를 빛다'(4월11일~5월21일)는 우리나라 전통주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전시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80년대 부활하기까지의 과정과 호남지역 대표술 해남진양주, 진도홍주, 정읍 죽령고, 전주 이강주 등을 소개하고 누룩 등 술 재료를 선보인다.

9월에는 우리나라 상업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광주 장날'전을 계획하고 있다.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형성과정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종 유물을 통해 상거래 관행, 무게·부피 등 측정방법을 알아본다. 문의 062-613-5361. /김용희기자 kimyh@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주름무늬 항아리.



나주 신촌리 유적에서 발견된 국보 제 295호 금동관.

황중환 교수 카툰전 'Urban Farmers'

갤러리 리채 6일까지...코엘료 작품속 삽화 등 전시



▶'Urban Farmers'

정유년 새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황중환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가 갤러리 리채에서 6일까지 'Urban Farmers-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를 연다.

황 교수가 펴낸 책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는 삽화 원화, 회화, 영상 등 작품을 선보인다. 'Urban Farmers'는 콘크리트 도시 숲 속에서 살며 꿈과 희망을 일구는 농부들을 가리킨다.

전시에서는 서울 출신 황 교수가 광주에 거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느낀 점을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파울로 코

엘료와 함께 작업한 '마법의 순간' 원화 이미지를 대형 사이즈로 다시 제작했다.

또한 교과서에 실린 '대붕이', '화가야 빠'를 비롯해 동아일보에 14년간 연재했던 카툰 '386C' 일부와 파울로 코엘료의 '마크툽' 등에 실었던 대표 캐릭터 등을 전시한다.

카툰 영상 작업은 전시장 내 TV 모니터와 프로젝터빔을 통해 작은 화면, 큰 화면 등으로 감상할 수 있다.

흥의대를 졸업한 황교수는 저서 '당신이 행복입니다' 등을 펴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섬유조형전 13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섬유 공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전남섬유조형회가 13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동구 지원동)에서 제11회 '광주·전남섬유조형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19명이 참여해 한지, 털실, 펠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선 회원은 지호공예기법(종이로 골격을 만드는 기법)으로 제작한 '한글 꽃을 피우다'를 출품했다. 아가시가지한 꽃잎 사이로 한글 자음을 배치해 화려함을 더했다.

나인승 회원은 알록달록한 작은 천 조각을 꿰매 붙인 '무제2016-2'를 전시한다. 천연염색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통 무늬와 색상을 부각시켰다. 또한 나인승 회원은 털실로 만든 '크리스마스 나무'로 독특한 조형미를 선사한다. 그밖에 윤귀옥 회원은 나무껍질에 털실로 만든 버섯을 붙인 '피어나다' 작품을 공개한다. 섬유조형회는 지난 2006년 창립전 '사



나인승 작 '크리스마스 트리'

랑의 선물전'을 시작으로 매년 회원전을 열며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문의 062-676-898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